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3. 18.(수) 12:00
(지 면) 2026. 3. 19.(목) 조간

‘AI 에이전트’로 행정의 미래를 그린다

- 3월 19일, ‘AI 에이전트 생태계’ 저자 이주환 대표 초청 세미나 개최
 - ‘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’ 개시 이후, 지능형 공공서비스 고도화 전략 논의
- 【관련 국정과제】 24.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3월 19일(목)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‘AI 에이전트 생태계 및 공공 AX(AI Transformation) 전략’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9일 ‘AI 국민비서’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통한 데 이어,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실행형 인공지능(AI)인 ‘인공지능(AI) 에이전트’를 공공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.

<실리콘밸리 전문가가 전하는 인공지능(AI) 트렌드와 공공 서비스의 변화>

-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이주환 Swit Technologies 대표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인공지능(AI) 전략 전문가이자 「AI 에이전트 생태계」의 저자다. 이 대표는 인공지능(AI) 에이전트가 단순한 기술적 매커니즘을 넘어, 공공서비스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통찰력 있게 짚어냈다.
- 세미나에는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을 비롯해 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, 장동수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, 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 등 공공부문의 AI 정책을 이끄는 주요 실·국·과장들이 총출동하여 미래 행정 혁신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다.
- 세미나에서는 △AI 글로벌 트렌드, △AI 에이전트의 구성과 활용 전략, △공공서비스 적용 시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.

<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행정, 지능형 정부 구현 가속화>

- 행정안전부는 현재 네이버·카카오와 협력하여 제공 중인 100여 종의 전자증명서 발급 및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를 시작으로, AI 국민비서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.
- 앞으로도 출생, 이사, 창업 등 국민의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행정 정보를 인공지능(AI)이 미리 파악해 개인 맞춤형으로 선제 제공하는 ‘지능형 정부’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.
- 또한, 더 많은 민간 인공지능(AI)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‘정부 중개 플랫폼’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폭을 대폭 넓힐 계획이다.
-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“AI 국민비서는 공공분야에 ‘인공지능(AI) 에이전트’를 도입한 국내 첫 사례”라며, “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분야 인공지능(AI) 확산 전략을 마련하여 국민이 일상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(AI)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인공지능정부실 공공서비스혁신과	책임자	과 장	박민식 (044-205-2721)
		담당자	서기관	고경희 (044-205-2732)

